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부활 제5주일

2024년 4월 28일 / 제63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35 봉헌 511, 211 성체 166, 154 파견 458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Magnus Johnny 2nd Reader Isabella Chung

입당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9,26-31

화답송 | 시편 22(21),26ㄴ-27.28과 30ㄱㄴ.30ㄷ-32(◎ 26ㄱ 참조)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요한 15,1-8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때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4월 28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5월 05일	주일학교 NO	Fr. Theo
05월 12일	주일학교 NO	Fr. Jim
05월 19일	주일학교 NO	Combined Mass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다

오늘 부활 제5주일은 '주님 안에 머물', '주님 사랑 안에 머물'이 주제입니다. 독서와 복음이 모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님 안에 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독서와 복음은 이를 세분화하여 각각 실천적인 머물과 '관상적인 머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문다고 하고, 복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마르타적인 사랑의 머물과 마리아적인 사랑의 머물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관상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고갈되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 사랑은 가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배터리의 사랑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사랑 충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충전되고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이거나 영터리 기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르타처럼 실천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모든 이웃 사랑 실천이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이웃 사랑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는 그 인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그 인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연인 간의 사랑 또는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하고 난 뒤에도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렬했던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는다거나 사랑이 어떤 이유로 미움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 사랑 안에 관상적으로 머물기 없이 사랑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신호임을 우리는 즉시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김찬선레오나르도 신부 |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모던민화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누군가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나 지난 시간의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였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생각지도 못한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때 뭔가 다시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코 건네는 말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는데, 만약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직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온종일, 아니 한 평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은총을 특별히 미사 때 말씀 전례를 통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총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독서대입니다. 독서대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복음과 강론을 중심으로 한 말씀 전례는 바로 이 독서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아울러 화답송과 보편 지향 기도도 독서대에서 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독서대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성경 봉독은 언제나

나 독서대에서 한다. 따라서 제대나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으로서 성당 안에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자리이다.” (미사경본 총지침 58항; 간추린 미사전례지침 p.18 참조)

그렇습니다. 제대가 성찬의 식탁이라면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을 이룹니다. 그래서 독서대는 성당 안에서 말씀의 품위에 걸맞게 모든 교우가 쉽게 볼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의 식탁이라는 의미에 맞춰 독서대를 이루는 재료도 제대와 조화를 이루는 고상하고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서대는 전례 안에서 제대와 짝을 이뤄 하느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 주며,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미사라는 완전한 제사 안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현존을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해 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가 하나인 것처럼 독서대도 하나만 설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말씀 전례(독서대)와 성찬 전례(제대)가 짝을 이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 안에서의 은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선포되고 거행된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 5월 주요 전례 일정

- 5월 2일(목): 성시간
- 5월 5일(주일): 어린이 첫영성체(교중미사 중)
- 5월 12일(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Mother's Day
- 5월 19일(주일): 야외 미사 겸 성모님의 날
- 5월 26일(주일): 학생 졸업 축복식(교중미사 중)

■ 주일학교 건진성사를 축하합니다!

- 김엘라 (Ella Kim) 마리아막달레나
- 이은호 (Emiliana Lee) 에밀리아나
- 정선우 (Sunwoo Jung) 요한사도
- 정시은 ((Sieun Jung) 소피아
- 주강산 (Noah Joo) 노아
- 최지혜 (Jihye Choi) 소피아
- 홍준모 (Gabriel Hong) 가브리엘

■ 주일학교 첫영성체반 주요 일정

- 4월 2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첫고해 및 전례 연습
- 5월 4일(토), 오전 10시: 사진 촬영 및 리허설
- 5월 5일(주일): 첫영성체(부활 제6주일 교중미사 중)

■ 2024년 예비신자 교리반 재모임

- 일시: 4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교리실
- 내용: 첫고해 안내, 신앙생활 나눔 및 질의응답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4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4월 28일(주일), 오후 1시·Room A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 주일학교 일정 안내

- 5월 5일: 첫영성체(오전 9시 30분, 한국어 미사)
* 주일학교 수업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9시 30분 미사참례와 첫영성체를 함께 축하해 주세요.
- 5월 5일(주일): 주일학교 방학
- 5월 26일(주일): 졸업생 축복 미사(오전 9시 30분, 한국어 미사)

■ 북미주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 일정: 8월 1일(목) - 4일(주일)
- 장소: St. Clare's Retreat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장소: 5월 5일(주일), 오전 11시·Room A
- 5월 19일에 있을 야외미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구역·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852	\$459	\$3700	\$110	\$205	\$632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기원태(1-3), 김성치(4), 김지용(3), 두신(3,4), 박일신(4-6), 송형철(4), 이줄리아(5), 정선수(4/23-4/24), 최원숙(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4), 두신(3,4), 박일신(4-6), 최원숙(4)

- Bishop's Appeal

김성치(4), 두신(3,4), 박일신(4-6), 최원숙(4)

- 성전봉헌금 기원태, 두신

- 감사봉헌금 정성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여성의 역할

For the role of women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의 존엄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종식 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dignity and immense value of women be recognized in every culture, and for the end of discrimination that they experienc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